

그림 스타일 사전

AI 이미지·영상 프롬프트에 그림의 룩을 정확한 이름으로 적기 위해 만든 사전이다.

매체·기법, 형식 원리·표현 양식, 장르·화목의 세 묶음으로 나누어 항목마다 정의와 특징을 적었다.

영상 용어 사전·모션그래픽 사전과 짝을 이루는 자매 페이지로, 무대 영상의 룩을 이름으로 부를 때 함께 쓴다.

각 정의는 미술관·브리태니커·학술 문헌의 원어 인용을 근거로 달았다.

매체·기법

무엇으로 칠하거나 찍는가로 나눈 묶음이다.

유화·수채화·템페라·프레스코부터 수묵화까지 회화 매체와, 목판화·에칭·석판화·실크스크린의 판화 기법을 함께 둔다.

프롬프트에서 재질과 질감을 지정할 때 이 묶음의 이름을 쓴다.



OIL PAINTING

유화

유화는 안료 입자를 건성유에 섞어 만든, 천천히 마르는 물감으로 그리는 그림이다. 아마인유 같은 식물성 기름에 갠 물감을 칠해 공기 중에서 단단한 색 피막을 이루며, 서로 잘 섞여 미묘한 색 변화와 빛 그림자의 세부를 낸다.

- 천천히 말라 수정이 쉽다
- 색이 잘 섞여 미묘한 변화
- 굳으면 단단한 색 피막

대표작: [Young Woman with a Water Pitcher](#) · [Johannes Vermeer](#) · ca. 1662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WATERCOLOUR

수채화

수채화는 물에 녹는 투명한 물감인 수채 물감으로 그린 그림이다. 고운 안료를 수용성 접착제에 갠 물감을 주로 종이에 물로 풀어 칠하며, 반투명해서 종이의 흰 바탕이 색면에 자연스러운 광채를 준다.

- 반투명, 종이 흰빛이 비침
- 흔히 남겨 두는 종이의 흰 부분
- 젓거나 마른 바탕 위의 채색

대표작: [A Basket of Clams](#) · [Winslow Homer](#) · 1873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TEMPERA

템페라 tempera (이탈리아어)

템페라는 물과 달걀노른자 같은 수용성 유화액에 안료를 개어 그리는 기법이다. 전통적으로 나무 패널 같은 단단한 바탕에 칠하며, 물감이 마르면 단단한 막이 된다.

- 달걀 등 유화액으로 안료 결합
- 나무 패널 같은 단단한 바탕
- 마르면 단단한 막

대표작: [Madonna and Child](#) · [Duccio di Buoninsegna](#) · ca. 1290–1300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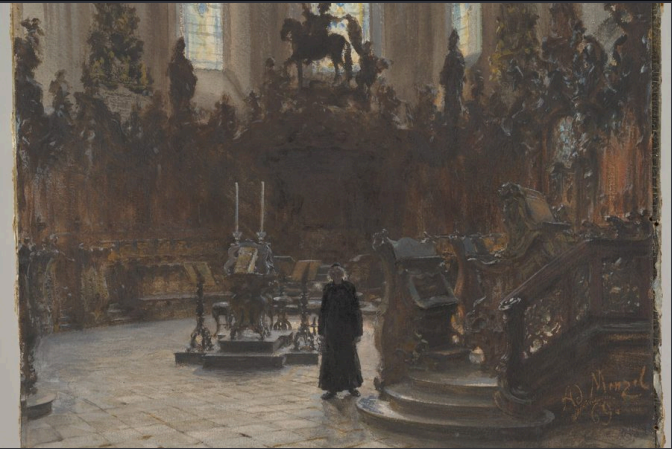
FRESCO

프레스코 affresco (이탈리아어)

프레스코는 젖은 회반죽 위에 물 기반 물감으로 직접 그려 물감이 회반죽의 일부가 되게 하는 벽화 기법이다. 하루 작업량만큼 새로 바른 회반죽이 젖어 있는 동안 칠해 물감이 흡수되므로 오래가며, 마른 회반죽에만 그리면 벗겨지기 쉽다.

- 젖은 회반죽에 수성 물감
- 하루 분량씩 나눠 바름
- 물감이 벽에 스며 내구성

대표작: Cubiculum (bedroom) from the Villa of P. Fannius Synistor at Boscoreale · 작가 미상 · ca. 50–40 BCE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GOUACHE

과슈 gouache (프랑스어)

과슈는 수채 물감과 달리 불투명해서 종이의 흰 바탕이 비치지 않는 수용성 물감이다. 수용성 고무에 안료를 개고 흰 안료를 더해 불투명하게 만들며, 종이 위에 두꺼운 물감층을 이룬다.

- 불투명, 종이 가 비치지 않음
- 흰 안료 첨가에 의한 불투명성
- 수채 하이라이트에 잦은 활용

대표작: The Choirstalls in the Mainz Cathedral · Adolph Menzel · 1869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ACRYLIC PAINTING

아크릴화

아크릴 물감은 합성수지로 안료를 결합한, 물 기반의 빨리 마르는 물감이다. 물을 얼마나 섞느냐에 따라 얇게도 두껍게도 쓸 수 있어 수채화나 유화처럼 보이게 할 수 있고, 마르면 물에 지워지지 않는다.

- 합성수지 결합, 빨리 마름
- 물 양에 따라 얇게·두껍게
- 마르면 방수

대표작: 더 큰 침범(A Bigger Splash) · 데이비드 호크니 · 1967 · Tate



PASTEL

파스텔

파스텔은 순수한 색 안료를 결합제와 섞어 막대 모양으로 굳힌 채색 소묘 재료이다. 가장 흔한 소프트 파스텔은 종이 위에서 손가락이나 천, 찰필로 문질러 쉽게 섞으며, 오일 파스텔은 기름과 왁스 결합제로 크림 같은 질감을 낸다.

- 안료를 굳힌 막대
- 문질러 섞는 분필 질감
- 오일 파스텔은 크림 질감

대표작: [Three Dancers Preparing for Class · Edgar Degas · after 1878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CHARCOAL / DRAWING

목탄화·소묘

소묘는 본질적으로 표면에 선을 그어 형상을 나타내는 기법이며, 목탄은 탄소로 된 검고 부서지기 쉬운 소묘 재료이다. 목탄은 전통적으로 껍질을 벗긴 가는 버드나무 가지를 산소 없이 가열해 만들며, 누르는 곳은 짙고 가장자리는 가루처럼 퍼지는 선을 낸다.

- 선으로 형상을 나타냄
- 누른 곳 짙고 가장자리 번짐
- 번짐과 혼한 분무 정착액 보호

대표작: [Armor · Odilon Redon · 1891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ENCAUSTIC PAINTING

납화(엔코스틱) enkaustikos (그리스어)

납화는 안료를 뜨겁게 녹인 왁스에 섞어 그리는 기법이다. 주로 나무·회반죽·캔버스 바탕에 칠한 뒤 열원을 표면 위로 지나가게 해 붓이나 주걱 자국을 하나의 균일한 막으로 융합한다.

- 뜨거운 액체 왁스와 안료의 혼합
- 열을 가해 표면을 융합
- 선명하고 매력적인 효과의 가능성

대표작: [Portrait of a young woman in red · 작자 미상 · 90–120 CE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INK WASH PAINTING

수묵화 水墨畫 (shuimohua) / 수묵화

수묵화는 먹과 물로 묹힌 먹을 붓으로, 대개 종이에 칠해 그린 그림이다. 먹의 농담으로 대상을 묘사하며, 전통 중국 화가는 대체로 색채를 배제하고 명암을 통한 형태의 입체적 표현 대신 먹 묻은 붓의 선에 의지했다.

- 먹과 물의 농담 단계
- 전통 중국 화가의 대체적 붓선 중시
- 서예와 같은 붓 훈련

대표작: Woods and Valleys of Mount Yu · Ni Zan · dated 1372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WOODCUT

목판화

목판화는 결을 따라 자른 나무판으로 찍는 볼록판화이다. 형상이 도드라지게 판을 깎아 그 면에 잉크를 묻히고 종이를 대어 압착하며, 일본 우키요에처럼 손으로 문질러 찍기도 한다.

- 형상을 도드라지게 깎음
- 볼록면에 잉크를 묻혀 찍음
- 손으로 문질러 찍기도 함

대표작: Four Horsemen of the Apocalypse, from "The Apocalypse" · Albrecht Dürer · ca. 1497/1498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ETCHING / ENGRAVING

에칭·인그레이빙

에칭과 인그레이빙은 금속판에 홈을 내고 그 홈에 잉크를 채워 찍는 오목판화이다. 에칭은 방식막을 긁어낸 선을 산으로 부식시키고, 인그레이빙은 뷰린으로 직접 새겨 누르는 힘과 각도에 따라 선의 굵기와 질기가 달라진다.

- 판의 홈에 잉크를 채움
- 에칭은 산으로 선을 부식
- 뷰린 선은 굵기·농도 변화

대표작: Melencolia I · Albrecht Dürer · 1514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LITHOGRAPHY

석판화(리소그래피)

석판화는 기름과 물이 섞이지 않는 성질을 이용해 평평한 돌이나 금속판에서 찍는 인쇄 방식이다. 형상 부분을 기름진 재료로 처리해 잉크가 붙게 하고 나머지는 잉크를 밀어내게 하며, 이전의 볼록판·오목판 방식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자국과 면의 톤을 찍을 수 있다.

기름과 물의 반발 이용 평평한 판에 기름진 재료로 그림 폭넓은 자국과 면 톤

대표작: Moulin Rouge: La Goulue · Henri de Toulouse-Lautrec · 1891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SCREENPRINT

실크스크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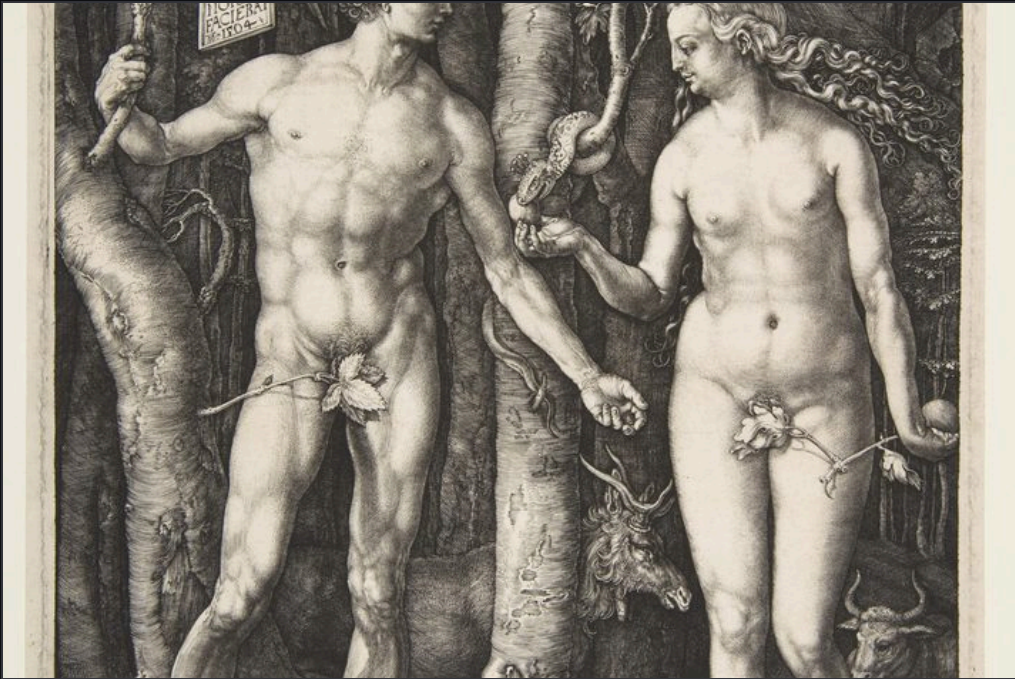
실크스크린은 틀에 팽팽하게 당긴 천 스크린을 쓰는 공판화이다. 스퀴지라는 고무 날로 잉크나 물감을 밀어 스텐실로 막지 않은 천의 틈을 통해 종이에 찍는다.

천 스크린을 통한 공판 스텐실로 막은 곳은 안 찍힘 스퀴지로 잉크를 밀어냄

대표작: 마릴린 두 폭(Marilyn Diptych) · 앤디 워홀 · 1962 · Tate

형식 원리·표현 양식

빌플린의 다섯 쌍과, 시대를 가로질러 쓰이는 재현 방식을 한 묶음에 둔다.
선적과 회화적처럼 짝으로 읽는 항목과, 자연주의·이상화·양식화·추상·점묘처럼 단독으로 쓰는 항목이 있다.
같은 소재라도 어느 쪽으로 기울일지 정할 때 이 묶음에서 단어를 고른다.



LINEAR

선적

선적 양식은 윤곽과 부피를 통해 대상을 서로 분리해 보는 빌플린의 보기 방식이다. 선이 시선의 길잡이가 되고 사물의 경계에 강조가 놓여 대상이 하나씩 떨어져 보인다.

- 윤곽선이 시선을 이끔
- 사물의 경계를 강조
- 대상이 하나씩 분리됨

대표작: Adam and Eve · Albrecht Dürer · 1504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PAINTERLY

회화적

회화적 양식은 만질 수 있는 형태 구성을 버리고 순수한 시각적 외양에 몸을 맡길 수 있는 빌플린의 보기 방식이다. 회화적 시각에서는 사물들이 서로 녹아들며, 화면은 경계가 없는 듯 보이는 경향이 있다.

- 윤곽이 풀려 사물이 섞임
- 경계 없는 듯한 화면
- 세계를 흔들리는 외양으로

대표작: Aristotle with a Bust of Homer · Rembrandt (Rembrandt van Rijn) · 1653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PLANE

평면적

평면적 양식은 전체 형태의 부분들을 면의 연속으로 정리하는 빌플린의 양식 원리이다. 원시 미술의 양식이 아니라 단축법과 공간 착시를 완전히 익힌 뒤에 나타나는 방식이다.

- 부분을 평면의 층으로 배열
- 전체 형태를 면의 연속으로 정리
- 단축법·공간 착시 습득 후의 표현

대표작: [Madonna and Child Enthroned with Saints · Raphael \(Raffaello Sanzio or Santi\) · ca. 1504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RECESSION

깊이적(후퇴)

깊이적 양식은 깊이를 강조하는 빌플린의 바로크 양식 원리이다. 윤곽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평면의 가치도 떨어지며, 평면적 양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재현 방식이다.

- 평면적 양식과 다른 재현 방식
- 깊이를 강조
- 평면 질서가 풀림

대표작: [The Miracle of the Loaves and Fishes · Jacopo Tintoretto \(Jacopo Robusti\) · ca. 1545–50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CLOSED FORM

닫힌 형식

닫힌 형식은 화면이 그 자체로 완결된 전체로 느껴지게 짜는 빌플린의 고전 양식 원리이다. 엄격한 배열과 한정·완결을 지향하는 구축적 (tectonic) 양식이다.

- 엄격한 배열
- 스스로 완결된 전체
- 한정과 완결 지향

대표작: **Madonna and Child Enthroned with Saints** · Raphael (Raffaello Sanzio or Santi) · ca. 1504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OPEN FORM

열린 형식

열린 형식은 규칙 준수를 어느 정도 감추면서 자유롭게 배열하는 빌플린의 바로크 양식 원리이다. 규칙을 감추는 경향 속에서 틀과 이음매를 느슨하게 풀고, 완결된 형상이 미완처럼, 한정된 것이 무한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

- 규칙 준수를 어느 정도 감춘 배열
- 틀과 이음매가 느슨함
- 미완·무한의 인상

대표작: **Wolf and Fox Hunt** · Peter Paul Rubens · ca. 1616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MULTIPLICITY

다원적 통일(다수성)

다수성은 각 부분이 전체에 뿌리내리면서도 어느 정도 독립성을 지니는 빌플린의 고전 구성 원리이다. 통일은 자유로운 부분들의 조화로 이루어진다.

- 전체에 뿌리내린 각 부분
- 부분마다 어느 정도 독립성 유지
- 자유로운 부분들의 조화

대표작: The Agony in the Garden · Raphael (Raffaello Sanzio or Santi) · ca. 1504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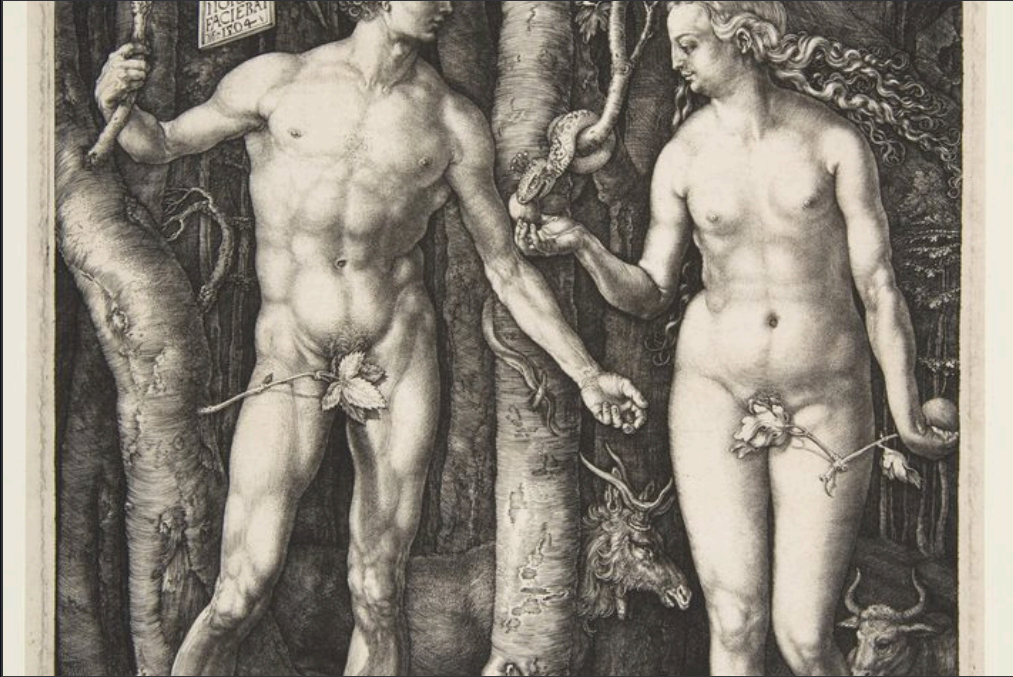
UNITY

단일적 통일(통일성)

통일성은 부분들을 하나의 주제로 묶어 이루는 빌플린의 바로크 구성 원리이다. 감상자는 부분을 차례로 읽기보다 전체로 한꺼번에 지각한다.

- 하나의 주제로 부분 결합
- 전체로 한꺼번에 지각
- 17세기가 요구한 보기

대표작: The Night Watch · Rembrandt · 1642 · Rijksmuseum



ABSOLUTE CLARITY

절대적 명료성

절대적 명료성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하나씩 떼어 조형적 감각으로 접근할 수 있게 재현하는 빌플린의 양식 원리이다. 고전기는 완전한 명료성이라는 이상을 발전시켰다.

- 사물을 있는 그대로 재현
- 하나씩 떼어 명확히 보임
- 완전한 명료성을 향한 이상

대표작: Adam and Eve · Albrecht Dürer · 1504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RELATIVE CLARITY

상대적 명료성

상대적 명료성은 사물을 보이는 대로, 전체로서 비조형적 성질에 따라 재현하는 빌플린의 양식 원리이다. 바로크의 목적은 불명료함이 아니라 명료함을 우연한 부산물처럼 보이게 하는 데 있다.

- 사물을 보이는 대로 재현
- 명료함이 우연한 부산물
- 때로 감춰진 것의 매력 활용

대표작: 정중한 대화, 이른바 '아버지의 훈계'(Gallant Conversation, Known as 'The Paternal Admonition') · 헤라르트 테르보르흐 · ca. 1654-1655 · Rijksmuseum



NATURALISM

사실적 묘사(자연주의)

자연주의는 사물을 우리가 보는 방식에 더 가깝게 재현한 19세기의 폭넓은 미술 흐름이다. 고전 전통의 관습에 따른 이상화·양식화와 달리 풍경과 인체를 더 사실적으로 그렸으며, 흔히 야외 사생과 연결된다.

- 보이는 방식에 가깝게 재현
- 관습적 이상화에서 벗어남
- 흔히 야외 사생과 연결

대표작: Salisbury Cathedral from the Bishop's Grounds · John Constable · ca. 1825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IDEALIZATION

이상화

이상화는 인물·자연·장면을 가장 완전하거나 아름답다고 여기는 기준에 맞추어 재현하는 방식이다. 대상의 가장 좋은 특징을 부각하고 불완전한 특징은 줄이거나 고치며, 서양 아카데미에서는 역사화에 맞는 고전적·이상화된 '장엄 양식'으로 이어졌다.

- 가장 좋은 특징을 부각
- 불완전한 점을 줄임
- 완전·미의 기준에 맞춤

대표작: The Abduction of the Sabine Women · Nicolas Poussin · probably 1633–34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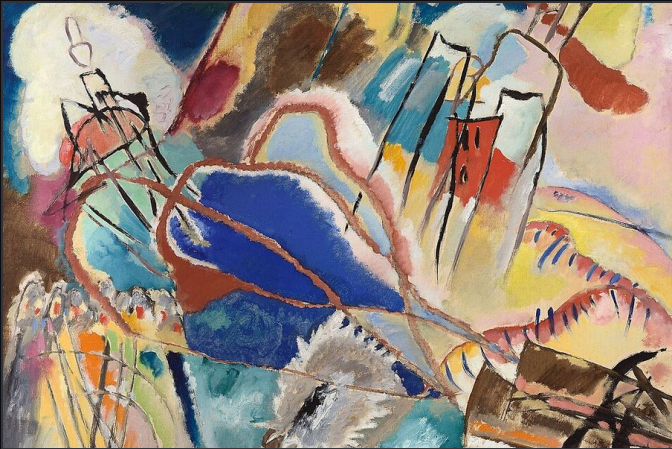
STYLIZATION

양식화

양식화는 자연의 형태를 단순화하거나 과장해 나타내는 재현 방식이다. 넓게는 개별 대상의 관찰보다 특정 양식의 관습에 따라 걸모습과 형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 형태를 단순화·과장
- 관찰보다 양식 관습을 따름
- 형태를 도식화

대표작: Irises at Yatsuhashi (Eight Bridges) · Ogata Kōrin · after 1709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ABSTRACT ART

추상

추상미술은 시각적 현실을 정확히 묘사하려 하지 않고 형태·색·형상·몸짓의 자국으로 효과를 내는 미술이다. 대상을 바탕으로 형태를 단순화한 경우와 외부 현실에 전혀 근거하지 않은 기하학적 형태·몸짓 자국을 쓰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 현실의 정확한 묘사를 버림
- 형태·색·몸짓 자국으로 효과
- 단순화형과 순수 추상

대표작: Improvisation No. 30 (Cannons) · Wassily Kandinsky · 1913 · Art Institute of Chicago
같은 사조의 다른 작품

MINIMALISM

미니멀리즘

미니멀리즘은 1960년대 미국에서 발전한 극단적 추상미술로,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에 바탕을 둔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로 이루어진다. 외부 현실을 재현하려 하지 않고 재료와 형태 자체를 실재로 삼아, 관객이 눈앞의 것에만 반응하기를 바란다.

-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
- 외부 현실 재현을 거부
- 재료와 형태 자체가 실재

대표작: 등가물 VIII(Equivalent VIII) · 칼 안드레 · 1966 · Tate

PHOTOREALISM

극사실(포토리얼리즘)

포토리얼리즘은 1960년대 후반 유럽과 미국에서 나타난, 공들인 세부와 정밀함이 특징인 회화 양식이다. 작가를 알아보게 하는 붓 터치와 회화성을 버리고 사진처럼 보이는 그림을 추구했으며, 고조된 선명함과 감정적 중립을 지향했다.

- 공들인 세부와 정밀함
- 붓 터치의 회화성 배제
- 사진 같은 선명함·중립

대표작: . . .



EXPRESSIVE DISTORTION (EXPRESSIONISM)

표현적 왜곡

표현적 왜곡은 사실적 묘사 대신 주관적 감정과 내면 경험을 드러내는 표현 방식이다. 표현주의 회화에서는 색이 강렬하고 비자연적일 수 있고 형태가 왜곡되며, 붓질은 대체로 자유롭고 물감은 풍부하고 질감 있게 칠해지는 경향이 있다.

- 강렬한 비자연적 색의 가능성
- 일그러진 형태
- 대체로 자유로운 붓질·풍부한 질감

대표작: [Wheat Field with Cypresses](#) · Vincent van Gogh · 1889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DECORATIVE / FLAT STYLE

장식적·평면적

장식적·평면적 양식은 공간의 깊이 대신 변화 없는 색면과 굵은 윤곽으로 화면을 짜는 표현 방식이다. 고갱의 종합주의와 나비파에서 보듯 평평한 색면, 굵은 윤곽, 단순화된 소묘가 특징이며, 그림을 무엇보다 색으로 덮인 평평한 면으로 본다.

- 평평한 색면
- 굵은 윤곽선
- 공간감 없는 2차원 화면

대표작: [la Orana Maria \(Hail Mary\)](#) · Paul Gauguin · 1891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POINTILLISM / DIVISIONISM

점묘 pointillisme (프랑스어)

점묘는 섞지 않은 색의 작은 점이나 짧은 터치를 규칙적으로 찍어 색이 눈에서 광학적으로 섞이게 하는 회화 기법이다. 팔레트에서 섞으면 채도가 떨어지므로 원색 성분을 화면에 따로 찍었고, 광학적 혼색은 더 큰 밝기를 주었다.

- 섞지 않은 색의 작은 점
- 눈에서 일어나는 광학 혼색
- 팔레트 혼합보다 밝음

대표작: [Circus Sideshow \(Parade de cirque\)](#) · Georges Seurat · 1887-88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장르·화목

무엇을 그리는가로 나는 묶음이다.

서양은 역사화·초상화·풍속화·풍경화·정물화·동물화의 아카데미 장르 위계를, 동양은 산수·화조·인물·사군자의 화목과 조선 풍속화·민화를 나란히 둔다.

프롬프트의 주제와 구도를 정할 때 이 묶음의 이름으로 부른다.



HISTORY PAINTING

역사화 peinture d'histoire (프랑스어)

역사화는 고전 역사·신화·성경에서 주제를 가져온 그림이며, 18세기에는 근래의 역사적 사건도 포함했다. 프랑스 왕립 아카데미의 장르 위계에서 가장 높은 장르로 여겨졌고, 고전적이고 이상화된 장엄 양식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 고전사·신화·성경 주제
- 장르 위계의 최상위
- 이상화된 장엄 양식

대표작: [The Death of Socrates · Jacques Louis David · 1787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PORTRAIT

초상화

초상화는 특정한 사람을 재현한 그림이며, 작가가 자신을 그린 것은 자화상이다. 모델의 권력·덕·아름다움·부 같은 자질을 보여 주는 데 쓰였으며 거의 언제나 미화되었다.

- 특정한 한 사람의 재현
- 모델의 지위·덕을 드러냄
- 대체로 미화됨

대표작: [Self-Portrait · Rembrandt \(Rembrandt van Rijn\) · 1660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GENRE PAINTING

풍속화 peinture de genre (프랑스어)

풍속화는 일상생활의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 특히 발달했고, 농민 생활이나 선술집 음주 장면 같은 주제를 대개 작은 크기로 그렸다.

- 일상생활의 장면
-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발달
- 대개 작은 크기

대표작: [The Harvesters · Pieter Bruegel the Elder · 1565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LANDSCAPE PAINTING

풍경화

풍경화는 서양 미술의 주요 장르 가운데 하나이다. 17세기 이전에는 주로 다른 장르의 배경에 머물렀으며, 17세기에는 고전적 풍경과 라위스달 같은 네덜란드 화가의 자연주의적 풍경이 발전했다.

- 자연 경관이 주제
- 배경에서 독립한 장르
- 고전적·자연주의적 두 갈래

대표작: [Wheat Fields · Jacob van Ruisdael · ca. 1670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STILL LIFE

정물화 nature morte (프랑스어)

정물화는 움직이지 않거나 죽은 것을 주제로 하는 서양 미술의 주요 장르이다. 음식과 포도주 같은 물질적 즐거움을 찬미하거나, 흔히 그 즐거움의 덧없음과 삶의 짧음을 경고하기도 한다.

- 움직이지 않는 사물
- 꽃·과일·조개·음식·포도주
- 덧없음(바니타스) 경고

대표작: [Still Life with a Skull and a Writing Quill · Pieter Claesz · 1628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ANIMAL PAINTING

동물화

동물화는 동물을 주요 주제로 하는 그림이다. 흔히 개·말 같은 아끼는 반려동물이나 가축, 이국적 야생동물을 그리며, 18세기 유럽 회화에서 크게 발달했다.

- 동물이 주요 주제
- 말·개·가축·야생동물
- 18세기 유럽에서 발달

대표작: [The Horse Fair · Rosa Bonheur · 1852–55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LANDSCAPE PAINTING (EAST ASIAN)

산수화 山水畫

산수화는 자연을 주제로 한 동아시아의 그림이며, 중국에서는 당나라 말기에 이미 독립된 장르로 발전해 있었다. 중국 산수화는 외부 세계의 단순한 재현인 경우가 드물며, 자연과 교감하려는 교양인의 동경이나 화가의 마음속 풍경을 담는다.

- 자연과의 교감·은거의 동경
- 외부 세계의 단순 재현 아님
- 화가의 마음속 풍경

대표작: Old Trees, Level Distance · Guo Xi · ca. 1080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BIRD-AND-FLOWER PAINTING

화조화 花鳥畫 (huaniaohua)

화조화는 새와 식물 같은 자연 소재를 주로 그린 동아시아의 그림이다. 중국에서 시작해 꽃·새·물고기·벌레를 다루며, 화가의 개성과 생각을 전하고 중국 문화에서 새와 꽃의 종류마다 지닌 상징적 의미를 활용한다.

- 꽃·새·물고기·벌레 소재
- 화가의 개성과 생각 전달
- 중국 문화 속 새·꽃 종류별 상징

대표작: Finches and bamboo · Emperor Huizong · early 12th century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FIGURE PAINTING (EAST ASIAN)

인물화 人物畫

인물화는 사람의 형상을 주제로 한 동아시아의 그림으로, 중국에서는 한나라부터 당나라까지 주로 인물을 그렸다. 당나라 화가들은 대개 가는 먹선으로 인물의 윤곽을 잡고 화려한 색과 정교한 세부를 썼으며, 오도자는 먹선만으로 자유롭게 그렸다.

- 가는 먹선의 윤곽
- 화려한 채색과 세부
- 때로 다루는 유교적 교훈

대표작: 여사잠도(女史箴圖, Admonitions of the Instructress to the Court Ladies, 고개지 작품을 따른 것으로 전하는 현존본) · 고개지 작품을 따른 것으로 전하는 현존본 · 5-7세기 · The British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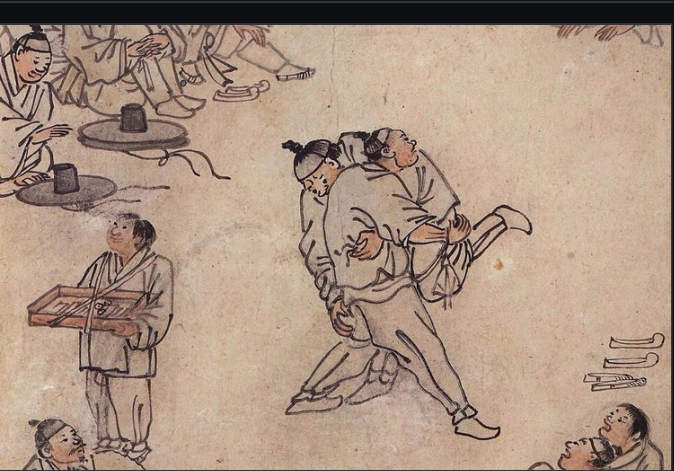
FOUR GENTLEMEN

사군자 四君子

사군자는 매화·난초·대나무·국화의 네 식물을 묶어 부르는 화제이다. 강직함·순수함·겸손·인내 같은 중국의 전통적 덕목을 상징하며 각각 겨울·봄·여름·가을을 나타낸다.

- 매·난·국·죽 네 식물
- 군자의 덕목을 상징
- 대나무 등의 주된 수묵·서예 필치

대표작: [Bamboo, old tree, and rock · Wu Zhen · dated 1338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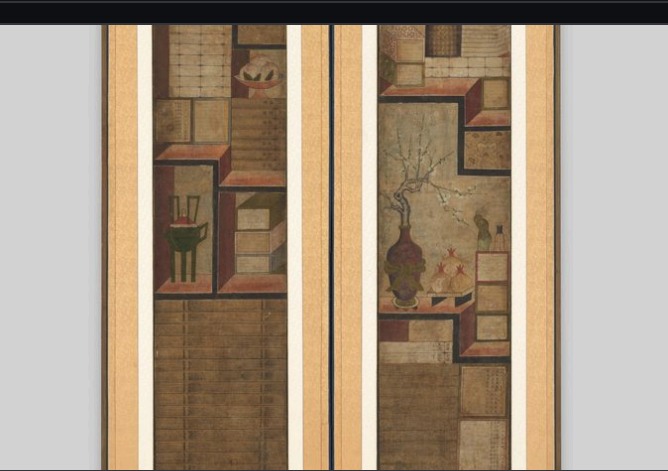
KOREAN GENRE PAINTING (JOSEON)

풍속화(조선) 風俗畫

조선 풍속화는 사람들의 일상 활동을 그린 그림이다. 특히 18세기 작품은 조선 사회를 솔직하고 사실적으로 재현해 높이 평가되며, 김홍도는 서민의 삶을, 신윤복은 양반의 유흥을 주로 그렸다.

- 사람들의 일상 활동
- 솔직하고 사실적인 재현
- 인물마다 다른 표정

대표작: [Danwon Ssireum · Kim Hong-do · 연도 미상 · 국립중앙박물관](#)



MINHWA (KOREAN FOLK PAINTING)

민화 民畫

민화는 주로 서민이 후원한 민속 그림이다. 이름 없는 장인들이 대형의 화려한 장식·의례용 궁중 회화의 규범과 형식을 따르되 크기를 줄여 그렸다.

- 서민이 후원한 그림
- 이름 없는 장인의 작품
- 궁중 장식화를 작게 축소

대표작: [Books and Scholarly Accoutrements · Unidentified artist · 19th century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정의는 미술관·Britannica·학술 문헌 원문 인용에 근거하고 이미지는 퍼블릭 도메인 소장품이다.